



준비와 목탁

이나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이주민과 상생하는 지혜

엠브레인 리서치가 10대 이상 대한민국 남녀 20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및 신부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한 현상에 대해 응답자 73.8%가 “글로벌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4.9%가 “일자리를 뺏는 존재”라고 응답했다.

경기도 김포, 안산시 단원구, 서울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에 가면 이주민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된 것을 봐도 느낄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은 170여 개국에서 건너온 100만 외국인들과 공존해사는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주민들은 주로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불교국가 출신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의 생산직등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마다 이주민들이 투입돼 그동안 국내 산업을 유지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인원 감축 바람이 부는 요즘, 1순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한국인들은 이주민 유입을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정작 일자리를 뺏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결과다.

외국의 경우도 유사하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기업인에게 “직원을 해고할 때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국에서는 포르투갈 출신 외국 노동자들의 고용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벌이고 있고, 스페인은 정부차원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쥐어주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 종교별 이주민 지원단체 가운데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76%에 달하지만, 불교계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계종의 이주민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외)은 올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성 스님이 (사)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 한 예다. 게다가 마하이주민지원협의회(회장 보림) 소속 15개 단체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세영)의 불교계 이주민 지원 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만 미국에서 맞는 경제 한파에 몇 배나 더 추운 하루하루를 보낼 이주민들에게는 불소식보다 더한 따뜻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주민과 공생·공영하는 지혜와 자비가 필요한 때다.

“난관극복 위해 불교계 힘 보태 달라”

한 총리, 지관 스님 신년예배 자리서 협조 요청

한승수 국무총리(사진)는 2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경제난 등 난관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익산 미륵사지 수습에 불교계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불교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계 요청사항은 언제든지 경청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한승수 국무총리(사진)는 2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경제난 등 난관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 지관 스님과 한승수 총리는 한중·한일 불교교류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고,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종섭 기자

무자년 동안거 해제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에

“어디에서 구슬을 찾으려고 하는가”



남전(南泉) 선사와 종남산 운제(雲際) 땅에 머물던 사조(師祖) 스님이 나는 문답입니다. “마니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래장 속에서 몸소 얻었다고 하였으니 어떤 것이 장(藏)입니까?” “그대를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왕래한 것이 장(藏)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고 오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것도 장(藏)이 아니라.”

■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그렇다면 어떤 것이 구슬입니까?” 이에 사조를 부르니 ‘예’하고 대답하며 다가오자 선사가 말씀했습니다. “가거라. 그대는 나의 말을 알지 못한다.” 이 말에 사조는 깨쳤습니다.

한 철 동안 열심히 정진하여 해제 때 제대로 안목이 갖추어진 날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그토록 물을 일이 있을 것이며 또 대답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눈 밝은 이가 볼 때면 선상을 뒤엎어야 할 만큼 어려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문답 와중에서 사조가 깨쳤다고 하였으니 남전 선사의 자비심은 끝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제대중에게 이 산승

이 묻겠습니다. “사조가 깨달았다고 함은 구슬을 깨달은 것입니까? 장(藏)을 깨달은 것입니까?”

만약 이런 질문에 휘둘러들어 어려움 저러움 답변하려고 한다면 만행 시에 스스로의 공부 살림살이를 다시 점검하면서 천하를 다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치를 알고서 제대로 본다면 온 땅덩어리가 온통 여래장인데 어디서 세삼 구슬을 찾을 것이며, 또 온 땅덩어리가 마니주이니 다시 무엇을 장(藏)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가보장(自家寶藏)은 불용중인차차(不用從人借借)하고 자연응용무휴(自然應用無斷)리라 자기 집에 보배창고가 있으니 남에게 빌리려고 하지 말라. 자연히 응용되니 모자람이 없으리라.

2553(2009)년 동안거 해제일에

“혼탁한 세상속의 역할 깊이 생각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요즘 경제사정으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생의 욕망을 그대로 둔 채 아무 경제를 소리 높여 외쳐보아도 불을 끄기 위해 입바람을 불면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불집만 커지듯이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불성을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자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실천없이 부처를 구하는 것은 농부가 알곡은 경시하면서 썩데기만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기 그지없는 헛수고지요. 누우(累累)이 말씀드리거니와 해제(解制)는 결제(結制)동안 갈고땀은 지식과 지혜를 증생과 사회를 위해

■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베푸는 이타기간(利他期間)임을 명심하여 어렵고 혼탁(混濁)한 세상을 헤쳐 나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계유일심 만법개유식(三界唯一心 萬法皆唯識) 우치미중생 대각명위불(愚癡迷衆生 大覺名爲佛) 삼계가 오직 한마음이요 만법이

알음알이에 불과하니 이 도리에 어두우면 증생이고 이를 알아 깨달으면 부처라네.

삼계지중분요요 증생도노총망망(三界之中紛擾擾 衆生徒勞總茫茫) 일념불생심정연 무우무쟁불생멸(一念不生心澄然 無憂無爭不生滅).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사람들이 모두 바빠 날뛰고 있네. 한생각 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여 걱정도 없고 다름도 없으며 생멸 또한 없어진다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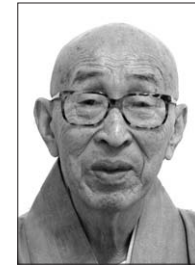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생활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수련방광 할 줄 알아야 참다운 대장부”



■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緣放光) 할 줄 알아야만 참다운 대장부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더불어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가 녹아있는 지혜여야 참다운 지혜입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사특해서, 만물을 해칠 뿐입니다. 요즘은

(전략) 세상이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조금 더 풍족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여러 사람들의 신심(身心)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욕지족(小欲知足)이라 하였습니다. 욕심을 없애면, 만족할 줄 알게 되고, 만족함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더욱더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흔적 없는 지혜와 흔적 없는 자비의 실천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후략)

“생사문제 지금 바로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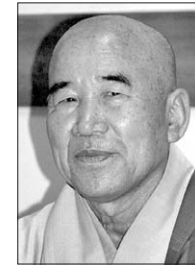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頭一念(似火團)이라 화단소진대천계(火團燒盡大千界)하니 아비범부역비불(我非凡夫亦非佛)이로다. 잠자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니 화두 한 생각이 불덩이처럼 뜨겁구나.

(전략) 불멸이 대천세계를 다 태워버려야 나는 범부도 아니지만 부처도 아니라고 큰소리 칠 것이다. 금일 대중 가운데 작년 결제 때 내가 심은 나무에 꽃을 피운 이가 있거든 한 가지 꺾어다 보여주기 바란다. 차수불수우로는(此樹不受雨露恩)하니 화개위음미생전(花開威音未生前)이로다. 이 나무가 비와 이슬의 혜택을 받지 않으니 위음왕(威音王, 부처님) 오시기전에 꽃이 벌써 피었다.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간절하게 본래면목을 깨닫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도달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을 하나를 다지기 위해 오늘 해제라는 이름으로 쇄신(刷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략) 주야천개합(晝夜天開闢)하고 춘추지사생(春秋地死生)이라 기재지일물(奇哉這一物)이여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이로다. 주야로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고/ 땅은 춘추로 생사를 바꿈질 하는 구나/ 기이하구나, 이 한 물건이 예/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도다. 잘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략)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학인 및 행자 모집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아래와 같이 강원 신입생·편입생 및 행자를 모집합니다

강원학인 모집안내

- ◆강원생 모집
■신입생 : 치문반 00명
■편입생 : 사집·사교반 00명

- ◆모집기간 : 2009년 3월 2일(월요일) 까지
◆강사진 : 강원장 주지 경담스님(불교의식)
강주 성천스님(대교·사교반) 강사 청해스님(치문·사집반)

- ◆구비서류
1. 입 학 원 서 (본강원 소정양식) 1부
2.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서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승복차림사진 (3×4cm) 4매
6. 범죄경력 자료 회보서 1부
7. 입 방 비 30만원
※ 준비물 : 가사·장삼·발우·필기도구
※ 강원학인스님에게 범음, 범패, 불교의식 교육
※ 타 종단 스님도 입학가능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장

행자 모집안내

- ◆행자자격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동등한 학력소지자

- ◆모집기간 : 2009년 3월 10일(화요일) 까지

- ◆구비서류
1. 이 력 서 1부
2. 가족관계 확인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범죄경력 자료 회보서 1부
5. 사진 (3×4cm) 4매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 졸업식·입학식 공고

- ◆졸업식 : 2009년 3월 3일 오전 10시 대웅전
◆입학식 : 2009년 3월 3일 오후 2시 대웅전

태고총림 선암사

